

강대석 총회장, 박노준 안양대학교 총장에게 안양대학교 장학금을 기탁

6월 24일 안양대학교 총장실에서 학교관계자 및 대신총회 총회장 강대석목사(청운교회)와 당회원 정성어린 현금 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



강대석목사
대신총회장



박노준총장
안양대학교총장



“모교인 안양대학교 발전과 다음세대 세우는 귀한 일꾼을 만드는 상아탑이 되어 달라”

안양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청운교회 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복원) 총회장 강대석목사와 당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을 안양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안양대학교에 따르면 강대석 총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양대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모교인 안양대학교 장학금을 매년 후배사랑 되물림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흔쾌히 기탁했다.

강 총회장은 “현재의 안양대학교는 대신교단의 모태로서 민족복음화를 꿈꾸면서 공부하던 곳이었다”

서 “졸업 후 모교를 방문할 때마다 늘 빛진 듯한 느낌을 받아 후배사랑과 모교발전의 작은 표시”라고 장학금 기탁 소감을 밝혔다.

청운교회와 강대석목사는 모교인 안양대학교는 물론 지역에 있는 경인교대와도 2014년부터 매년 재학생의 장학사업 등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강 목사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선도하며 인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는 경인교대가 관내에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경인교대의 재학생 장학금 등을 위해 사용하여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청운교회는 삶의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이 시대,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한 편 청 운 교 회 는 “ V I S I O N 10·100·1000·10000”라는 목표를 가지고 10개 지교회와 100명의 선교사, 1000개의 셀과 그리고 10000명의 성도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삶의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이 시대, 삶에 지친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안양대학교는 목회자장학금, 지역사회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안양대학교는 장학금 제도와 관련하여 먼저 인성인재 장학금으로 인턴 장학금, 국가유공 장학금, 외국인 장학금, 가족 장학금, 민들레 장학금, 생활관 장학금, 장학사정관계 장학금, 장학기금 장학금, 나눔 장학금, 하나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등이다.

또한 실천인재 장학금으로 신입생 단과대별 수석 장학금, 신입생 성적우수 장

학금, 재학생 학년수석 장학금,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실기 성적우수 장학금, 아리비교과 장학금, 공로 장학금, 국가고시 합격자 장학금, 군종장교 후보생 장학금, 군위탁교육 장학금, 고시합숙 장학금, 취업지원 장학금, 취업인턴 장학금 등이다.

더 나가 창의인재 장학금으로 봉사 장학금, 교환학생 장학금, 국제화 장려 장학금, 글로벌 장학금, 우일학원 복지 장학금, 목회자 자녀 장학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대신총)와 인준관계로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로서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매 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시민 장학금은 본교(분교 포함)가 위치한 지역(안양, 강화)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학생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이에 박노준총장은 “기부 받은 장학금은 강대석목사와 교단의 뜻에 따라 가

정형편이 어렵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수 인재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장학금 기부는 소통과 신뢰의 선진형 학교 문화 구현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한다”며 “본 단체 일동은 행복한 동행 가족의 힘을 모아 앞으로도 대학발전과 올바른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대학교는 1948년 설립된 장로회신학교에서 출발했다. 이후 대한신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1952년 4년제 야간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1981년 상급학교 입학학력 인정학교로 지정되었다. 계속해서 여러 학과를 신설하고 부설기관을 설립했다. 1990년 대신대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93년 대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1994년 신학대학원 신설인가를 받았으며, 다음해 안양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1948년 8월 전도사 양성을 목적으로 김치선(金致善) 목사가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야간 장로회신학교로 설립하였다. 1949년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으로 교사를 이전하고 이듬해 대한신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52년 9월 4년제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아 신학과 정원 50명으로 개편하였다.

1964년 학교법인 대한기독교학원이 설립되었다. 1969년 국방부로부터 군종장교 후보생 지정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1977년 목회학과를 신설하였다. 1980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현재의 위치에 캠퍼스를 조성하여 이전하였다.

강영철기자

서울동노회 임원시찰상비부서장수련회 및 1차 목회자 후보생교육 열린다

2020년 7월 6-7일(월,화) 평창, 뇌운계곡 내 뇌운교회일대에서



▲ 6월 6일 서울동노회 117회기 제1차 임시노회 단체사진

대신(복원)총회 소속 서울동노회(노회장 강영철목사) 오는 7월 6-7일 일(월, 화) 오후 5시 부터 7일 정오 까지 강원도 평창군 뇌운계곡 내에 위치한 뇌운교회에서 노회임원시찰상비부서장 및 목회자후보생교육을 실시한다고 서기 김장호목사가 25일 밝혔다.

지난 6일 서울동노회는 제117회기 제1차 임시노회를 가져 신규 목사가입 및 교회가입, 목사후보생을 가입을 허락하고 시찰조직 및 상비부서조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용산에 위치한 총회신학교가 7월 4일 종강과 함께 임원시찰상비

부서장수련회 및 목사후보생교육을 통하여 노회원의 친목도모 및 교제, 상담등으로 지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목적으로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다. 주요일정은 서울동노회규정교육, 21세기 장차 한국교회의 목회방향등을 강의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회서기 김장호목사(대신교회 담임)는 “신입 회원들이 증가로 인한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신입 회원가입, 교회가입과 아울러 노회규정에 맞는 노회운영을 하기 위하여 총회와 연계하여 대신(복원)총회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강 시점에 맞춰 노회운영을 교육하여 노회 수준과 내용을 끌어 올리겠다”고 전했다.

이연중기자

"모임명 묻지마 대신" 활성화 되어 교제 및 강단교류 이어져

남양주시 화도,수동지역 대신총회출신 목회자 모임 현실어려움극복하고 계속 이어져

수 차례 대신총회는 분열이라는 사건을 지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대신총회는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듯한 아픔, '서먹서먹' 어색한 분위기 등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나라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 된다는 성경교훈에 따라 '묻지마 대신'으로 19개 교회가 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수동지역 대신총회 출신 목회자 모임이다. 교단이 분열되면서 서먹서먹 분위기는 금방 사라지고 모임명을 "묻지마 대신"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친교와 강단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역교회 가운데 이상호목사(떡갓교회 담임, 현재 합동)가 친교와 강단



▲ 구대신, 백석지교회가 현재는 묻지도 않고 묻지마 대신으로 사용하여 친교와 강단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 6월모임)

교류를 위한 모임을 제안하였고 이연중 목사(한결교회 담임 구백석, 현재 복원)가 실무총무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모임이 가동되었다.

정동명목사(좋은교회 담임 현재 수호)

의 지역연합회장의 당선은 이 모임에 영양력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월 1회가 실무총무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모임과 연말 강단교류는 계속 진행중이다.

강영철기자

면역력-미네랄 | 코로나19 예방
☆코로나 19 매출급증☆



죽염 9회 교체 분말 5회
3회 죽마고우 원장 고추장 죽염수 히트상품



인산죽염
인산죽염 송도대리점
Tel. 010-9382-7790
점장 백화자

인산의학 월간지
구독신청서 무료보내드립니다.



☆ 목회자 특별할인혜택 ☆

대신교회협동신문

발행인 강대석 대표 최중환 주필 박근상

등록번호 경기, 다 50524 등록일 2016년 4월 19일

편집국장 강영철 광고국장 김용백 영업국장 이창복 인쇄인 이병동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빛과 소금]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 미국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리는 조형물

“서울 녹번동 은평평화공원에는 군 복차림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

6·25전쟁 첫 해인 1950년 9월 22일 서울수복작전 때 녹번리 전투에서 28세로 전사한 미국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리는 조형물이다.

이 동상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2010년 세워졌다.

동상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한국 선교사 윌리엄 얼 쇼의 외아들로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미국 웨슬리언대를 졸업하고 2차 세계 대전 중 해군 소위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전했다.

1947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해군 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며 한국해안경비대 창설에 기여했다.

제대 후 하버드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중 6·25전쟁이 터지자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재입대했다.

이때 그는 부모와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

유명한 한국어로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뒤 그는 해병대로 보직을 바꿔 서울 탈환에 나섰다. 인민군 매복조의 습격을 받아 전사했다. 그의 숭고한 사랑에 감명받은 미국

감리교인들은 아버지 윌리엄 얼 쇼가 공동 창립한 대전감리교신학교(현 목원대)에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교회’를 건립했다.

그의 부인은 남편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버드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와 이화여대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 자원봉사자로 평생을 바쳤다.

아들과 며느리도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내한해 장학사업과 한·미 학술교류에 힘썼다.

은평평화공원 그의 동상 옆에는 기념비도 있다.

연세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전 문교부장관 등 60여 명이 ‘키가 크고 평양 말씨를 쓰던 백안의 친구’를 위해 1956년 녹번삼거리에 세웠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비석이다.

비석 받침대에는 제자이자 친구인 해군사관학교 2기생들의 헌사가 새겨져 있다.

그와 한국 친구들의 특별했던 우정은 국가 간 우방과 동맹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한국을 위해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을 바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매년 6월 6일과 9월 22일 이곳을 찾는다.

금년 현충일에도 그의 동상 앞에 오래 고개를 숙이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기가 태어난 나라 코리아를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하며, 부인과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자원 입대해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애국충정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춘천전투

한국전쟁 때인 1950년 6월 강원도 춘천에서 벌어진 전투.

70년전 6.25 전쟁에서 아군에게 승리를 얻도록 기여한 3대 전투가 있다.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 전투 그리고 춘천전투이다.

춘천대첩은 북한군 2군단 26,938명과 춘천을 사수하는 아군 6사단 김종오 사단장 외 9,338명(1대 4의 열세)이 싸워 북한군의 춘천에서 3일동안 저지함으로 가평, 양평, 수원으로 남진하려던 계획을 무산시켰다.

그 당시 아군의 포병은 81문이었으나 적군의 포병은 523문(10대 1로 열세)이었다. 춘천대첩의 승리는 6사단장의 탁월한 전투 준비와 시민들과 학도호국단 학생들 그리고 재사공장 애국적인 여공들의 협작품이었다. 학도호국

단 학생들과 시민들이 우두동에 있던 4,000발의 포탄을 소양강 남단 학교 운동장으로 운반했으며 여공들의 주먹밥이 전쟁에 참가한 군관, 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전투에서 아군은 장교 8명을 비롯한 300명이 전사했으나 북한군은 7,792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했다. 이로인해 미군의 개입과 낙동강전투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와 풍요를 허락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선열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현직 부장판사 "대북전단 처벌? 표현의 자유가 신음한다"



김태규부장판사 부산지법

현직부장판사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역사 왜곡 금지법’추진에 대해서도 “그 무모함에 자못 놀라게 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법관이 이처럼 정부 방침이나 입법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에 나선 것은 좀처럼 유례가 없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란 제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우선 그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 10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법(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교류를 위한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지 보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지 어렵다”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 이상 법치(法治)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 정권이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는 것은 어렵다”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던 미 연방대법원 사례를 제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여당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 법안에 대해서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김 부장판사는 “사실 인식과 해석을 법으로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인식은 전체주의나 독재 국가가 아니면 착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역사를 바로잡을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처벌해야 형식 논리에도 맞는다”며 “6·25를 북침이라고 하거나 천안함이 핵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은 얼마든지 열려 두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면 그 균형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진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대법원을 주도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을 결의하자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닷컴 인용

교단장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폭발적 갈등 야기



▲ 주요 교단장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 압박"

한국교회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 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고 양성 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먼저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25일 오전 7시 서울시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과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사유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첫째로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세밀하게 다루는 차별금지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

아가 ‘평등구현과 인권보장’,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소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을 인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셋째로, “국회의 여야 정당은 국회 일각에서 발의를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론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넷째로, “시민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초래할 비판의 자유 상실과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및 기도회에는 예정 통합 김태영 총회장, 예정 합동 김중준 총회장, 기성 한기철 총회장, 기하성 이영훈 대표총회장, 기감 윤보환 감독회장 대행, 기침 윤재철 총회장, 고신 신수인 총회장, 예정 개혁 신수인 채광명 총회장, 예성 김윤석 총회장, 합신 문수석 총회장 등 약 25개 교단 총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크리스찬투데이 인용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같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포화 속 예배 인도자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Army Chaplains in Korea, 1950). 한국 전쟁 참전 인원수 (팔호내 사망자 수)
미국 1,600,000 (36,492)
영국 56,000 (1,177)
캐나다 27,000 (516)
터키 14,936 (1,005)
호주 8,407 (346)
필리핀 7,500 (120)
태국 6,326 (136)
뉴질랜드 5,350 (41)
네덜란드 5,320 (124)
콜롬비아 5,100 (213)

그리스 4,440 (186)
프랑스 3,760 (270)
벨기에 3,590 (106)
아디오피아 3,518 (122)
남아공 900 (37)
덴마크 630
노르웨이 623 (3)
스웨덴 380
인도 346
이탈리아 185
룩셈부르크 89 (2)
유엔군 총계 1,754,400 (40,896)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딤후1:9 Mission For Sweet Jesus International

강영철기자



“용역 8명 달려들어 얼굴 때리고 내던지고...아수라장” (종합)

사랑제일교회에서 무슨일이

사랑제일교회 교역자인 김이숙 전도사

역들은 마치 먹잇감을 잡으러 온 짐승처럼 보였어요”

소화기로 성도들 얼굴에 분사

“교회에 쳐들어온 용역들에게 영커서 밀리면서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다리쪽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바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출혈이 심하길래 자세히 살펴보니 다리쪽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찢어져 있어서 병원에 가서 6바늘을 꿰매고 왔습니다”

이날 오전 혼돈이 상황속에서 부상을 당한 사랑제일교회 교역자 정시대 목사(50대)는 교회로 쳐들어온 용역 600여명과 대치된 상황에서 교회 성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자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들은 성도들에게 욕을 하는 등 자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

“그쪽에서 다른 우리 남자 전도사님 한 분도 때렸어요. 그분은 얼굴을 구타당했습니다. 용역들은 ‘다 끌어내’라고 소리치면서 여자 성도들까지 봐주지 않고 무조건 다 격하게 밀어내서 우리가 ‘성추행 하지마’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교회측에 따르면 당시 여자 전도사 한 명은 실신해서 119 구급차에 실려 현장에서 바로 삼육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남자 안수집사 한 명도 현장에서 바로 구급차에 실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장실 문을 강제로 파손하고 부수고 진 입했다.

용역들은 또 교회 식당 창고까지 난입해 성도들을 위해 마련된 음식물들까지 마음대로 훼손하고 못 먹게 만들어 놨다. 이날 정 목사는 식당에 있던 수박을 쪼개고 그 속에 담배꽂이를 집어넣어 놓은 직접적인 증거적인 사진도 보여줬다.

쇠파이프로 차량 유리창 파손

“교회 입구쪽에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들이 쇠파이프로 교회차 유리창을 깬어요. 경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자 성도들 등 약자들이 다치고 했을 때 용역들을 좀 막아달라고 이야기 했을 때 ‘우리는 누구편도 아닙니다. 중립을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중립을 지키던 경찰들도 일방적으로 사랑제일교회측을 밀어 붙였다. 경찰들은 성도들이 교회에 새로 못 들어오도록 이날 주위에 바라이케이트도 쳤다. 정 목사에 따르면 경찰이 처음 나타는 시점은 용역들만 오고나서 1시간이 지난 후였다.

철거용역 배후는 文정부

“용역들이 제 팔에 소화기 통을 던져서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용역들은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에게도 소화기로 뿌리



▲ 박중섭 목사

를 점거를 할 수는 있다고 해도, 신도들에게 굉장히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하고, 물건까지 집어던졌다”며 “교회안에 있던 화분까지 사람들에게 집어 던졌다”고 증언했다. 박 목사에 따르면 용역들이 교회 안쪽의 유리창들도 쇠파이프로 다 깨부셨다.

박 목사는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용역들이 나이드신 노약자 성도들을 몸을 들어서 교회 밖으로 집어서 던졌다는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더니...!”라고 분노했다.

“이번 사건은 사랑제일교회를 타겟으로 한 종교탄압이고, 기독교 박해입니다. 한국교회 다른 목사님들이 이 정부에게 자기들은 결코 안 당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젠 우리 사랑제일교회 한 교회의 안위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박 목사는 이번 용역 난입 사건의 배후로 정부를 지목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싸우느라 교회에 자주 있을 수 없었는데 이 틈을 노려 우리의 뒷통수를 친 것”이라며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젠 조합에서 움직이게 아니다”고 의심했다.

사랑제일교회가 굳이 건물을 헐값에 팔고 나가지 않는 이유도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닌 이런 정부의 탄압에 대한 ‘투쟁’ 차원이라는 해명이다. 그는 “우리가 투쟁하지 않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다”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위해 버티는 것이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폭력 탄압 강력 대응할 것”

자율정보 인용



▲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김현규씨(사진)는 22일 오전 교회에 난입한 용역들을 저지하다 얼굴과 목 부상을 목격당해 멍이 들어 있었다. 용역들은 집단으로 김씨를 붙잡은채 얼굴쪽을 가격했다. ©자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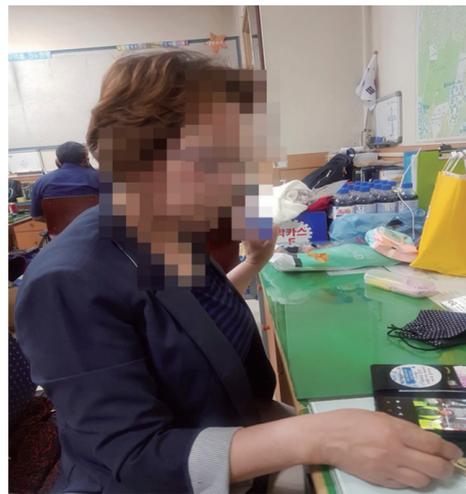
이번 2차 교회 철거 시도는 22일 월요일 새벽시간부터 기습적으로 강행된 것으로, 아침 10시30분까지 4시간 넘게 용역들과 교인들의 대치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일보의 현장 취재결과 이 과정에서 용역들에 의한 교회와 교인들의 일방적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 주방에서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용역들이 밀로 나를 밀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밀었는데 용역들 8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더니 위에서 찢어 놓았습니다. 그중 한명이 얼굴 옆 부분을 주먹으로 3번정도 가격했어요. 위에서 다른 용역들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때렸습니다. 얼굴을 다치고 입술도 찢어졌어요. 그런 상황이 1~2분 정도 계속됐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23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교역자실에서 만난 남자 성도 김현규(36)씨의 얼굴 옆부분과 목은 심하게 멍들고 부어올라 있었다.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그는 오전에 용역들이 쳐들어 왔다는 연락을 듣고 곧바로 교회로 달려 갔었다. 그는 “아침 7시 쯤에 갔는데 저를 포함한 교회 청년들 20명 정도가 용역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교회를 뚫고 들어오려는 용역들을 막아내는 상황에서 용역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당했다”고 증언했다.

여자 화장실 들어와 겁박

“제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데 용역들이 갑자기 여자 화장실로 들어와서 손을 씻으면서 나를 보게 됐고, 5~6명이 갑자기 한 번에 달려들어 제 팔을 꺾고 어깨를 비틀고, 뒤로 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 그랬는데 ‘끌어내라고 소리치면서 강제로 저를 끌어냈어요’



▲ 22일 사랑제일교회 교역자실에서 자유일보와 인터뷰 중인 김 모 여전도사(60세). 용역들은 이날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와 60대 여전도사를 겁박했다. ©자유일보

등을 밀고 때렸다. 그리고 그녀를 방패로 위에서 팽바닥으로 ‘때대기’했다. 김 전도사는 그때 발을 걸질렀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스스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도 용역들은 저를 안 보 내줬어요. 덩치 큰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아까는 정말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순간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용



▲ 정시대 목사가 직접 찍은 용역들이 수박을 깨고 담배꽂이를 넣어놓은 모습의 사진. 용역들은 이날 교회 식당의 음식물들도 못 먹게 훼손했다.

성도들이 교회안으로 용역들을 들어가 지 못하게 하자 용역들은 일방적으로 밀면서 들어왔다. 정 목사는 “잘 뚫리지 않자 용역들은 교회내에 비치된 20개의 소화기 중 19개 정도를 뽑아 1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성도들의 얼굴에 대고 뿌렸다”고 말했다. 교회재산을 불법적인 뿐만 아니라 위협스럽게 사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역들은 교회 당회

사랑제일교회 박중섭 수석부목사는 이날 교회로 난입한 용역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물론 교회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철거의 진실을 밝힙니다!

○ 본 교회는 허허벌판이던 장위동에 무려 1954년대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곳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주님의 성전입니다.
○ 가장 오래된 건축물을 ‘알박기’라고 부르는 것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명백한 명목에 훼손 범죄입니다.
○ 15년 전인 2006년경 장위동 뉴타운사업 발표된 그시점부터 본 교회는 서울시가 설계한 계획도면 상의 교회 신축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 조합장 황윤희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도록 도와달라며 교회에 요청하기도 하였고, 교회 안에서 조합의 총회까지 개최되었을 정도로 본 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의 가장 핵심 처소입니다.
○ 황윤희 조합장은 교회가 임시예배처소로 사용할 건물까지 알아봐 주며 본 교회가 당연히 이 본 지역 안에서 새로이 신축되는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 조합은 조합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수도 없이 본 교회가 신축될 땅이라며 확인 하였고 건축비용, 이주비용, 임시처소 비용 등의 혐의만 남아있음을 수도 없이 약속하고 확인해 왔습니다.

증거 : 2016. 11. 14. 사랑제일교회 귀하

연번	요청내용	회신내용	비고
1	여주(예)장 장위10구역 배치도면의 종교부지 위치도	10-2 (배치부지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	당후 확정측량 시 신규 지번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3	면적(㎡)	10-2 : 2,591.00㎡ (※ 당후 확정측량시 면적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황윤희

증거

사랑제일교회 : 2018년 05월 10일
수 신 : 사랑제일교회
발 주 : 국민참여위원회
제 목 : 사랑제일교회 종교부지 파괴 행위 영구 보류 요청
4. 귀 교회의 종교부지인 경우 2008.4.3.가 재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존의 도시 면적 2,323.00㎡를 포함하여 매입하고 재개발촉진법 제10-2(2,591.00㎡)부지는 철거와 같이 귀 교회의 대로부지로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황 윤 희

○ 그러던 중, 전광훈 담임목사가 구국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자 이 큰 교회의 땅과 건물을 모두 통틀어 고작 84억원의 금전을 받고 아예 교회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나가라며 강제 철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조합측은 강제 집행 시도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신도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여 쓰러뜨리고 노년 성도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 또한 분명한 것은, 현재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어 대출입자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본 교회와는 전혀 무관하며 오로지 조합 임원들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로 인한것임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전국 교회 목회자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135년전에 이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 운동, 건국, 6.25전쟁, 새마을 운동, 민주화를 거쳐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항상 그 중심에서 헌신과 희생이라는 순교의 정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으로도 전국에 재개발 사업에서, 지금과 같이 조합측이 사기와 기만으로 교회들을 속이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고 나가게 만드는 일이 두번다시 없도록 이 잘못된 행태를 끝까지 바로 잡겠습니다.

칼럼

창조와 섭리



〈김영규 목사〉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소장
뉴욕과학아카데미(NYAS)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미국화학학회(ACS) 초청회원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보여주는 결정체”

우리는 지금 창조와 섭리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된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 정보단위가 무엇인지 전혀 표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창조와 섭리를 구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되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버튼을 누를 것을 결

정하였다고 생각하기 전 적어도 300밀리 초 전에 이미 그 운동과 관련된 뉴런 영역들은 활동적이라는 사실이 이 칼럼의 글들에서 몇 번 소개된 바가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아주 고전적인 방식대로 의식이나 자아 중심적인 관찰에 전적으로 매인 나머지 그런 과학적 결과가 미래 문명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의식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주어졌고 대상에 대한 거리를 갖는 지각행위들에 의해서 외부 정보들이 모아진다고 해도 그런 정보들은 이미 완전하게 주어진 의식의 지도에 매 순간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진 의식 전체성으로서의 자아 이외에도 면역체계의 자아, 림프계의 자아 등 다른 자아들이 모아 인간 개체성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체의 그런 전체적 통일성 안에 다른 자아들이 얼마나 독립적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의식

적 자아는 인간 개체의 전체적 통일성에 대한 대표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그런 의식적 자아가 인간의 고유성이나 다른 생명체와 구별된 독특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 극단의 예로서 인간의 체세포 복제기술이나 만능의 줄기세포들의 기능들을 통해서 세포 하나에도 정보로서 인간 전체적 통일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이제 충분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의식의 지향점을 중심으로 인간이 생각하고 감성들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이나 감성들이 그 통일성의 마지막 방향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을 주도하는 정보들이 있다가 사라지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마지막 완전한 개체로서 성장이 멈추었을 때도 그런 정보들은 우리 몸을 계속 유지하는지 혹은 완전히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증명된 것은 없다.

그밖에도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의 그룹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과 같은 어떤 특정 위상기하학적 존재방식이 초기 결정되었을 때조차도, 인간수명의 정보와 같은 시간의 정보가 공간의 정

보로 어떻게 포함되었을지는 아직도 물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간의 정보나 공간의 정보에 상관없이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위상기하학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첨가될 때마다 그 이전의 질서에 목적으로서의 새로운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우주의 근원적 정보단위(아마 10-43m)로 된 정보의 세계 안에서 처음 우주의 근원적 동시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근원적 정보의 세계 밖에 계시는 것이다. 그것도 세계와 전혀 무한히 만날 수 없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방식에 의해서 그 세계 밖에 계시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하나님만이 근원적으로 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세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가 친히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나타나실 수 있고, 그 세계 밖에 계시면서 볼 수만 있을 수도 있고 볼 수 없어도 다스리실 수도 있을 것이며,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그런 세계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는 자이실 것이다. 다만 어떤 은하계 중심에 광자나 다른 소립자로 환원이 되면서 모든 위상기하학적 존재들의 정보들이 중력입자와 같은 정보단위의 정보세계 안으로 다 흡수할 수 있는 블랙 홀과 같은 세계

는 거시세계 안에 있는 세계질서에 대한 정보들의 어떤 저장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들이 흘러가는 다른 방향으로서 우리 물질의 세계가 속해 있는 절대속도의 세계(Cm의 세계)보다 더 근원적으로 영혼의 세계와 같은 체계인 다른 절대속도의 세계(Cs의 세계)로 흡수되는 방향도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블랙 홀의 세계가 어떤 은하계의 역사적 정보들이 흡수되는 유일한 장소로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경에 표현된 일상용어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실로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주가 사라져도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사실을 증명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언제든지 우주의 정보들을 다시 환원하여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그 차원들은 영원히 이해할 없는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가해성이 진리

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창조와 섭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들이지만 그 구별도 인간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그가 쉬셨다는 사실에 창조와 섭리 사이의 경계가 있을 것이고 구원에 관련된 안식이 계속 남아 있는 이상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창조의 하루는 태양계 회로 안의 지구 중심적 하루나, 노아 홍수 후에 변화된 하루 이전에 하나님의 좋은 하루로서 그 하루를 위해서 우주의 위상기하학적 지도가 계속 적응하는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정체성을 향한 창조된 하루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가해성 문제되지 않아

미래에도 그 하루를 위해서 우주의 다른 정보의 세계들(절대속도 Cm의 세계 절대속도 Cs의 세계, ... 절대속도 Co의 세계 등)이 동원이 될 것이다. 그 작정보다 선행한다는 비가역성에 대한 입장을 뇌과학 자체가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호국보훈의달 특집]

6.25 어찌 이날을 잊으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결정적 계기의 전공에 참전한 필자 소속 학도병들의 용맹과 희생



이인수 목사
(전)은누리수련원장
국가유공자, 6.25참전, 무공수훈

전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일이다. 미국공항에는 중동행 비행기를 타기위해 청년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 청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대인 학생들로서 그들은 조국이 사느냐 망하느냐의 흥망성쇠의 기로에 처해있는데 공부하는 해서 무엇하느냐면서 우리 조국을 구출하고나서 조국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야지한다는 소명의지를 가지고 책을 덮어놓고 전쟁터로 자원해가는 학생들이었는가 하면 또는, 결혼전에 근무했던 부대로 재입대한 18세의 여군은 임신의 만삭된 몸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지원 우리 조국이 없어지고 우리 조국이 없어지면 백축의 생명도 존재할수없다면서 폭격기 조종사로 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미국공항에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청년들이 있었다. 이들은 아랍공화국의 고관직 자식들과 부장직 자식들로서 안전지대인 미국으로 도망쳐온 것이다. 이들은 조국이야 망하든말든 혼자만 살면 된다고하는 이기주의자들로 소명의식이란 전혀없는 표본적 인물들이었다. 결국 소명의식이 투철했던 이스라엘은 6일만에 그 전쟁에서 대승하고 말았다.

6.25사변은 세계 제2차대전의 마지막 내리는 전쟁이었다. 1903년 레닌과 스탈린, 김일성등 3인이 레닌의 공산당 비밀조직으로 볼셰비키당을 세워 소련 중국 북한등이 공산사상으로 연대하여 강한 조직으로 기반을 잡았다.

그후, 레닌이 사망하자 스탈린이 볼셰비키당을 장악하고 혁명을 일으켰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스탈린이 조정하면서 스탈린은 김일성과 모택동등과 함께 공산진영을 좌지우지하게된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자 김일성이 공산당 중국인 중공 및 소련과의 야합 또는 사주를 받아 6.25의 불법남침을 가맹함으로써 평화스럽던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리의 피난민들의 행렬이 도로를 꼭매워 남으로 남으로 내려가는 그 속에 끼여있던 필자는 인군에 주둔하고있던 육군 제772부대에 자원입대하였다.

그 당시 그 부대는 필자가 포함된 학도병 제722명으로 새로 편성한 육본 직할 독립 제1유격대 소속으로 7일간의 군사기초 훈련을 받고 군번도 계급도 없



▲ 장사상륙작전희생자 위령비

는 학생복장 그대로의 학병이란 완장을 팔에 두르고 자기 키만한 구구식 장총을 받아메고 1950년 9월13일 출발하여 부산항에 도착 LST 문산호 배에 승선 다음날 새벽 4시반 적진 후방이었던 경북 영덕군 장사리 강구해변에 도착 상륙전에 들어가자 그곳 적군으로부터 불꽃튀는 맹렬한 집중사격에 우리군 전투비행기가 출동 공중 사격지원하에 결사적인 상륙전에서 우리 부대원 절반이상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방에 흩어져 쓰러진 시체들과 피투성이가 고동소리위하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에 날치마져 먹구름이 하늘을 어둡게 가리고 굶은비 내리는

생지옥같은 현장은 눈뜨고는 차마 볼수없을만치 참혹하기가 이를데없었다.

이때에, 우리부대에 주어진 임무는 맥아더장군이 인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양동작전으로 적군주력보급로인 포항전투와 영천방면 국도를 완전 차단시키고 적후방활동을 마비시키며 적2개 연대와 전차4대를 영덕방면으로 유인하여 경주 부산을 사수하고 서울을 수복하는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며 거대한 전과를 올림으로써 1953년 12월27일자(육군고부제138401호)로 우국청년(의사관호칭)이처럼 학도병들의 용맹과 희생과 전과를 올림에 대해 맥아더장군은 우리 부대원들의 전공을 높이어서 최고찬사의 전서를 보내주기도했다.

국가보훈처 확인조사에 의해 당시 영남일보사에서 보도한 기사에 보면 장사리전투에서 우리 학도병의 전사자 유품발견 무려 300점과 부상자 92명 상륙전에 승선했던 LST배 한척이 적의 폭탄에 맞아 침몰됨이 확인되었다고했다.

또한, 국방부가 발표한바에 의하면 6.25참전 지원국가수는 유엔군 16개

국과 그 외에도 전쟁물자지원해준 나라가 19개국 이 더 있으며 6.25전란으로 입은 신체적인 피해와 손실은 유엔군 전사자 36,772명 한국군 전사자, 27만명 유엔군 부상자, 23,000명 행방불명자 3만명 전쟁

고아 53,000명 전쟁과부 323,000명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 학살당한 우리 교역자 535명 불탄교회 267개소 전소 파괴된 교회당 1935개소등이라했다.

그리고, 6.25전쟁당시 미 24사단장인 단소장은 부상당한 부하에게 물을 떠다주려고 한밤중에 벼랑길을 내려가다가 심한 부상을 입어 포로가 되었고 벤프리트장군은 6.25전쟁에 아들을 참전시켰다가 전사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크라크장군은 6.25전쟁에 자기아들을 보냈고, 워커장군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다.

6.25는 이처럼 한민족안에서 서로 싸우고 함키며 피흘렸던 전쟁으로 인민군이 낙동강 까지 내려오기도 했고,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3년만에 휴전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6.25는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했다고는 딱잘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보면 무승부의 전쟁이었던 것 같고 또, 결말을 맺지못한 전쟁이었다고 하겠다.

그후로, 비록 휴전은 되었지만, 지금껏 남북으로 서로 대립과 긴장으로 적대감이 계속 되어가는 비극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수많은 전우

들이 적의 총탄에 쓰러진채 이고 지 저 능선 조국산천에 있는 영혼들이 가족의 품을 기다리다 잠들고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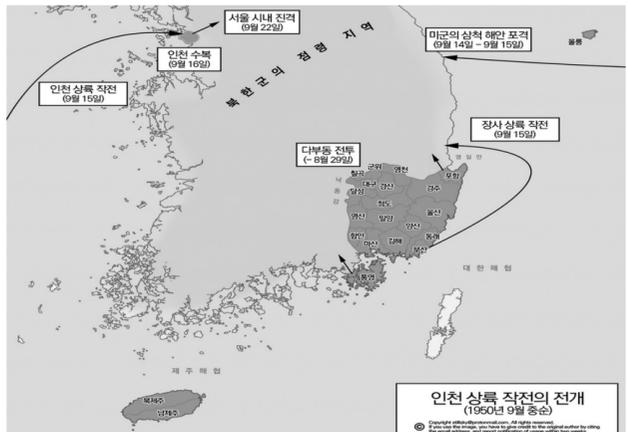
현재 생존해있는 6.25참전 노병들은 이제 80대 나이를 훌쩍넘어 90대 나이로 날로 쇠약해가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남은여생 길어야 몇 년이다. 헤갈수록 저세상으로 떠나는 노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끝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프랑스어로 높은 사회신분에 적용하는 도덕적의무를 뜻하는말로 노블리스(고귀한신분(귀족)이요) 오블리주(책임감)이 있다는말이다 영국황실은 오래전부터 군복부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병력기피 스킨들이 없다한다. 남자18세가 되면 군에 입대한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1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전직대통령과 장차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대기업사장과 그의 자식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여부를 조사해보면 좋겠다.

참전용사와 무공훈장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나라위해 생명을 마쳤지만 그 유해도 찾지못한 무명용사들의 가정을 얼마나 돌보고있는가? 우리 국민모두가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희생위해 세워진 이 나라에서 평안이 살고있음에 대해 보훈의 달을 맞아 한번쯤더 국가를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 장사 상륙작전 개시 당시의 진황.



기고

대통령님 전상서



윤대영목사 부천제일교회

한 가정을 섬기는 것도 힘겨운 다원화된 시대에 오천만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님의 고뇌와 수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현대는 국정 성과 평가를 하여 시시각각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며, 매일 시험 보듯 하시는구나 생각하니 더욱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국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국정이 있고, 선택적 국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적 국정과 굳이 선택적 국정을 구분하는 데는 헌법적 절대 가치가 있어 한 개인의 인격적 의도가 개입될 수 없는 국정을 필수적 국정이라고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헌법정신에 의하여 대통령님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대통령님 취임 전서입니다. 대통령님 전서는 헌법 제 69조에 의하여 전인격적으로 국민 앞에 서약한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전서를 한다." 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② 국가를 보위하며 ③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④ 국민의 자유와 ⑤ 복리증진 및 ⑥ 민주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님으로서의 ⑦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전서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서는 헌법적 전서이므로 이 전서는 국정을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원리입니다. 대통령님, 첫 번째는 나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법적 국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님과 비교해 볼 때 대통령님께서는 무법적 국정을 수행한 일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 의해 중대한 범죄는 임시상해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원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국가관, 국민, 국토, 주권이 있어야 국가입니다. 그 당시 주권을 잃어버린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통치권을 잃어버린 황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인 한반도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국토가 없습니다. 주권도 세계가 공인하지 않는 일방적인 애국단체일 뿐입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제정한 헌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보신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한 대통령님이 되신 자기 자신이 대통령 권한을 부여한 국가와 헌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귀하는 대통령님이 스스로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원인이 무효된 대통령님이십니다. 의열단으로 30억원의 포상금이 걸릴 정도의 혁혁한 독립운동의 공을 세운 김원봉이 어찌하여 국군의 뿌리입니까? 이야말로 자신이 나는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님니다라고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임을 아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국가를 보위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UN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도 UN에 가입한 엄연한 독립된 국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님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때때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지구상의 극악한 나라가 있는데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 나라가 적국임을 국방백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로 전방 GP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한 GP에서 우리 GP로 총격을 가해도 우리 GP는 기관총이 고장 나서 응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가를 보위하시겠다는 전서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적국에서 대한민국의 귀순한 인민을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눈을 가리고 판문을 통하여 복속한 것은 세계 난민법에도 위배되며,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도저히 행치 못할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적국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순자는 융숭한 대접과 환영함으로서 적국이 비인권적 체제임을 만민들에게 알리려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행복권을 위해서 국민 각인이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수익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핵발전 기술을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원전사업을 중단시키므로 말미암아 국민이 마음 놓고 기업을 경영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수성 경제이므로 국가 경제가 하향화되고 노동의 자유를 억누르고, 국가 법령으로 주 52시간 근무할 것과 최저임금을 상향하므로 마음껏 노동하여 생계를 보다 행복하게 꾸리려는 권한을 박탈한 것

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국마다 외국에 있는 자국 기업을 유턴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국가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를 빼앗고, 사회주의적 국정을 행사하시는지?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외교 문제 있어서도 1953년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 방위지역이 태평양입니다. 당연히 북한과 중국과는 어떠한 동맹이나 조약을 체결하려면 한미동맹 조약을 파기하고 맺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 대통령님이 재임하는 동안 맺은 합의 내지 조약은 모두가 무효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회주의 자임을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의식상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적폐로 보는 것은 본인은 당연하지만 의식이지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한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존립의 위기에 16개국의 외국 군대가 참전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에 국가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을 친일이라고 하고, 그의 국가 수호의 공을 무시한 채 국가 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선인민 공화국적 견해라고 사료 되며, 가령 백선엽 장군이 일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공은 당연히 국립묘지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님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전서한 대로 국정을 수행해 주십시오. 윤대영목사

사설

70년 전 희생으로 우리를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올해는 북한 김일성이 소련에서 공 급해준 최신형 탱크와 무기로 적화 시키기 위하여 임진왜란 이후 가장 참혹하고 희생자가 많이 나온 한국전쟁 6.25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나 보훈단체에서도 매년 행사는 있지만 교회가 꾸준히 한국전쟁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하여 알리고 교육 문제 있어서도 1953년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 방위지역이 태평양입니다. 당연히 북한과 중국과는 어떠한 동맹이나 조약을 체결하려면 한미동맹 조약을 파기하고 맺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 대통령님이 재임하는 동안 맺은 합의 내지 조약은 모두가 무효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회주의 자임을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의식상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적폐로 보는 것은 본인은 당연하지만 의식이지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한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존립의 위기에 16개국의 외국 군대가 참전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에 국가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을 친일이라고 하고, 그의 국가 수호의 공을 무시한 채 국가 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선인민 공화국적 견해라고 사료 되며, 가령 백선엽 장군이 일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공은 당연히 국립묘지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님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전서한 대로 국정을 수행해 주십시오. 윤대영목사

고 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 5만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희생 덕분에 생존하고 번영해온 나라에서 "미군 떠나 정부나 보훈단체에서도 매년 행사는 있지만 교회가 꾸준히 한국전쟁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하여 알리고 교육 문제 있어서도 1953년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 방위지역이 태평양입니다. 당연히 북한과 중국과는 어떠한 동맹이나 조약을 체결하려면 한미동맹 조약을 파기하고 맺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 대통령님이 재임하는 동안 맺은 합의 내지 조약은 모두가 무효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회주의 자임을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의식상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적폐로 보는 것은 본인은 당연하지만 의식이지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한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존립의 위기에 16개국의 외국 군대가 참전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에 국가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을 친일이라고 하고, 그의 국가 수호의 공을 무시한 채 국가 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선인민 공화국적 견해라고 사료 되며, 가령 백선엽 장군이 일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공은 당연히 국립묘지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님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전서한 대로 국정을 수행해 주십시오. 윤대영목사

6.25의 비극은 오판과 방심에서 비롯됐다. 군 수뇌부는 북한의 대규모 병력이 38선에 집결했다는 정보 보고를 무시하고 비상경계를 해제했다. 주말을 맞아 절반 가까운 병력이 외출하고 전방 부대 사단장들까지 육군본부 파티에 참석했다. 육군참모총장은 전쟁이 벌어지면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자 사흘 만에 수도가 함락됐다.

지금은 그때와 얼마나 다른가. 북은 핵탄두 수십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싣고 한반도 전역을 떠돌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그레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3대 한미연합훈련은 모두 중단됐고 휴전선 일대 적의 동태를 감시하던 노병들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국가의 놀라운 성취에 감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세계지도에서 지우려 했던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김씨 왕조의 폭정 아래서 자유도 인권도 없이 살고 있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잿더미로 변한 전쟁의 참화를 달고 일어났다. 전쟁이 끝난 1953년 13억달러였던 GDP는 작년 1조6000억달러로 100배 이상 늘었다. 1인당 소득도 67달러에서 선진국 기준선인 3만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70년 만에 G7 초청장을 받는 위치로 탈바꿈했다. 우리가 압축적으로 이뤄낸 산업화·민주화·선진화가 6.25를 잊힌 전쟁에서 자유를 지켜낸 전쟁으로 바뀌어 놓았다. 대부분 90을 넘긴 참전 국가 노병들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국가의 놀라운 성취에 감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세계지도에서 지우려 했던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김씨 왕조의 폭정 아래서 자유도 인권도 없이 살고 있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그 이슬이슬했던 역사의 갈림길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며 70주년을 맞

어진다. 이젠 잊을 것은 '종교적 영웅시대'는 잊혀지고, 우리는 새롭게 '광장에 선 크리스찬'을 우리는 배워야한다. 이 가운데 선교단체의 역할은 변해야 할 것이다. 과거 선교사들을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파송했던 것이 주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보통의 성도들과 지

역교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퍼실리테이션이 중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본다. 여기서의 선교는 기존의 타문화 선교를 넘어서는 다양한 공적 이슈들에 참여할 수 있는 총체적 선교의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빗 보쉬가 얘기했듯, 선교에 있어서 외국이나 국내이나 타문화이나 자문화이나는 범위에 관한 이슈이지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동욱목사 - 하나님의 통치



게 되었다. 이제는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렇다. 미래의 시대는 분명 지금껏 익숙했던 직업들이 사라지고 창의적인 직업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그럴 때 이 시대의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믿고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세계 곳곳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의 외교도 믿을 수 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무엇보다도 지금은 미래를 잘 통제할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가 절실할 때라고 생각한다.

설동욱목사(예정교회 담임)

국제이주자선교포럼 - 코로나이후 선교와 나아갈 방향



▲ 국제이주자선교포럼 지난 22일 CTS본사 컨벤션홀에서 열려 조셉 대표의 본문 내용중에서

코로나 팬데믹이후 글로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거론되고 문제제기 되었지만 기존의 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선교적 관행들에게 중요 순위를 새롭게 부여한다고 본다. 반면, 개신교 선교에서 지난 이백여년 동안 우선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졌던 다양한 선교적 관행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상대적으로 작용하기가 어렵게 되

어진다. 이젠 잊을 것은 '종교적 영웅시대'는 잊혀지고, 우리는 새롭게 '광장에 선 크리스찬'을 우리는 배워야한다. 이 가운데 선교단체의 역할은 변해야 할 것이다. 과거 선교사들을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파송했던 것이 주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보통의 성도들과 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선민교회(대신)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 1)지원자격
(1)연령 : 196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2)목회경력 : 지교회 목회 경력 5년 이상
(3)대신교단 소속목사, 안양신학대학원 졸업자
2)제출서류
* 1차 전형 제출 서류 : (1)~(8) 서류심사 단계 제출
(1)이력서(3개월이내 사진 부착-자유양식)
(2)자기소개서(자유양식)
(3)학위 증명서
(4)목사안수증명서
(5)노회소속증명서
(6)목회계획서(자원동기, 목회비전, 목회운영계획 포함-자유양식)
(7)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본인 주민번호만 표시)

- *2차 전형 제출 서류 : (9)~(10) 면접 전형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안내 후 제출
(9)건강진단서(본인, 사모)
(10)설교자료(동영상 URL 링크, USB, CD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
3) 서류 제출방법 :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담당자 이메일 접수 (ucm18@naver.com)
4) 서류 제출기간 : 2020년 7월 12일까지 매일접수
5) 참고사항
* 2차 전형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심사 후 일괄 폐기합니다.
* 문의사항은 e-mail로만 문의해 주세요.

* 교회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256-7 (대학 10길 27)
대한예수교장로회 선민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21세기 개혁신학의 요람 **총회신학원** 입학요강

2020학년도 전,후반기 특별장학생 및 신·편입생모집

■ 모집과정 및 자격

모집학과	모집과정	인원	구분	전형방법
학부과정	신학사(Th.B.)과정 신입	00명	주/야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자
대학원과정	신학석사(Th.M.)과정 신입	00명	주/야	M.Div 과정 졸업자
	목회학석사(M.Div.)과정 신입			학사학위 소지자 동등 자격자(정규신학졸업)
특수반 - 강해설교반	강해설교, 설교작성, 설교전달을 집중강의하는 과정			
- 영어설교반	해외사역과 전문영어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발음, 영어구조, 전달 등을 교육하는 과정			
- 편목과정	본 교단에 가입하거나 목회자들이 정회원이 되게 하기 위한 특별교육과정			

■ 전형일정 및 방법

-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 수시 접수
 나. 전형방법 : ①서류 ②면접
 다. 전형일자 : 상시 모집
 라. 전형료 : 30,000원(원서대 무료)
 마.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학(원) 졸업(하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동등 자격자는 해당 증명서 - 각 1부
 (학부과정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또는 동등 자격증명서(검정고시 합격))
 3) 당회장 또는 노회장 추천서 - 1부
 4) 주민등록등본 - 1통
 5) 반명함판 사진(원서부착포함) - 3매

■ 특전

입학생 전원 : 매학기 등록금(이사장학금) 50% 지원

- 장학혜택 - 재학 성적 우수자 : 재학 기간 등록금 전액 면제, 봉사자, 특기자 등에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수석졸업자 해외 유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구원(M.Div) 졸업자는 대신 총회신학교와 연계된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미국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유학을 추천하면 유학 기간 중 규정된 장학금을 지급함
- 본교 졸업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사역할 수 있음
- 미국 Reformed University(미 연방정부 인가 대학)와 연계하여 학위과정 이수자에게는 미국 유학을 도와주며 우수한 신학교에 추천하여 등록금을 지원함
- 본 신학원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통해 졸업 후 목회현장에서 성경 강해와 실천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계절학기(여름, 겨울)를 운영함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입학문의는 각 지역 CAMPUS별로 문의 바랍니다.

지역별캠퍼스

경기 남양주 CAMPUS | 010-4690-3301

경인 부 천 CAMPUS | 010-5341-0154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총회신학원 총회장 강대석목사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3길 58(청파동) 청파중앙교회(02-702-0041) 총 장 김향주목사
<http://www.ds1961.com>

